

유네스코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안 개정 국가 간 협의회를 통해 본 2023 권고안의 특징과 함의

1부: 박순용 (강연) 50분

2부: 한건수 & 박순용 (대담) 40분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23.9.9. 학술포럼

유네스코 1974 권고안이란? 왜 지금 개정이 필요한가?

- 유네스코 1974 권고안은 평화, 국제 이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기여하는 교육의 역할을 통합하고 명시한 최초의 국제 문서입니다.
- 1974 권고안의 정신에 따른 교육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빈곤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처럼 지구촌의 중요한 이슈들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1974 권고안은 교육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결집하고자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지구촌의 상황변화는 유네스코에서 이를 반영한 새 권고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권고안의 개정은 Transformative Education Summit과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결과에서 영감을 얻어 교수, 학습 및 혁신에 대한 전향적인 비전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유네스코 1974 권고 개정의 과정 (2021, 2022)

- 2021년 11월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이해, 협력, 평화 교육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를 개정키로 결의하고 2022년 1월~3월 동안 글로벌 서베이 진행
- 2022년 4월6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주관으로 아태지역 1974권고안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온라인 개최
- 국내에서는 여러 번의 준비회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974 권고 개정에 관한 포럼을 2022년 10월5일 개최(아태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공동)
- 2022년 11월30일을 데드라인으로 국내 전문가 서면 의견 수합 후 유네스코 개정 초안 검토 및 국내 개정 의견 및 방향 반영. 교육부의 변경 요청안을 포함시켜 유네스코 송부.

유네스코 1974 권고 개정의 과정 (2023)

- 2023년 5월4일 유네스코 1974 권고안 개정을 위한 정부 간 특별 협의회 준비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 (14:00~16:00시 프랑스 파리 기준시)
- 1차 회의 개최: 2023년 5월30일 ~ 6월2일 (유네스코 본부)
- 2차 회의 개최: 2023년 7월10일 ~ 7월13일 (유네스코 본부)
- 2023년 11월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권고개정안 심의 및 통과 예상



PARA FROM CURRENT TEXT	NEW PROPOSED TEXT OR AMENDMENTS
TITLE	TITLE
<p>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p> <p>제안자:</p> <p>빨간색: 교육부</p> <p>파란색: 박순용 교수님</p> <p>보라색: 강순원 교수님</p> <p>노란하이라이트: 아태교육원(작은 수정은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을 사용)</p>	<p>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p> <p>(Rationale)</p> <p>It is quite disappointing that the term 'global citizenship,' which guides citizens to become global-minded to pursue the path toward a more just and peaceful world, has been omitted from the newly proposed title. Such an omission is questionable considering the very fact that the slogan of UNESCO is 'Peace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p> <p>The recent increase in hate speeches/crimes and racial discrimination across the globe is a disturbing trend that has become a growing concern for all and in need of a search for its root causes. In this sens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garnering more interest to serve its role in reversing such a trend both at global and regional levels. 'Global citizenship' is an all-encompassing ethos that promotes inclusion and enhances camaraderie among all people regardless of his/her cultural, ethnic, national backgrounds. In this sense, it would be a missed opportunity to not include global citizenship in the title, which sets the tone for the new Recommendation.</p> <p>The rationale of such omission that "there was no agreed upon definition of the term and this notion was considered to be a means to achieve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ot an end in itself" is not convincing enough.</p> <p>It is inappropriate to remove the term 'global citizenship' from the title simply because there is no agreed-upon definition of it.</p>

<의견>

추신: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다 훑어보면서 지난번 IEG 참여했었을 때 느꼈던 감회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21 명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 GCED 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개정해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안에서는 GCED 가 들어간 것은 다행이었으나, 보고서에 반영되었듯이, 아마도 국가별 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반론이 IEG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It was also suggested that "global citizenship" should be removed because there was no agreed upon definition of the term and this notion was considered to be a means to achieve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ot an end in itself.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 이 초안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회의적인 논평을 하면서 우호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GCED 를 제목에 넣는 것은 유네스코 회원국의 전체 분위기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때 참석은 안했지만 중국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나마 아태입장에서는 EIU 가 그대로 들어갔으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로 논쟁 중이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2 차 초안 안에 GCED 가 몇 개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끝까지 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목이 평화교육 권고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전쟁관련하여서는 한 마디도 없는 무미건조한 평화교육 권고안입니다. 평화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평화교육 권고라고 하기도 정말 말이 안됩니다. 오늘날 왜 평화가 문제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고, 인식의 기저인 탈식민지적 논의에 대한 언급도 없고, 내용도 중언부언이고, 특히 교육 단위별 논의는 정말 의미도 없습니다. 고등교육은 평화교육 권고와 거의 상관이 없는 일반 논의에 불과합니다. 성인교육이나 직업교육 등도 그렇고. 정말 답답하네요.

마지막으로 2015 년 성인학습 및 교육 권고에는 UIL 역할이 명기되어 있어 제가 아태역할을 명기하려고 했는데 UIL 과 급이 달라서인지 전혀 수용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1974 권고 개정이 끝까지 이대로 갈 것인지가 정말 의문입니다만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가겠쥬. 그러다보니 제가 더 넌만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주 속상하네요.

수고하세요.

드림

1차 회의 주요 내용 (주로 한국측 입장에서)

- **의장단 선출** - 지역별 사전 조정에 따라 의장: 케냐 / 부의장: 캐나다, 몰도바, 칠레, 오만
- **회의 진행방식 결정** - 의장의 제안에 따라 정의, 목적, 제목의 순서로 한 단락씩 검토하기로 함. 2차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수정 문안이 표시된 영어 및 불어 문서를 검토하기로 함.
- **권고안의 용어 정의**에서 GCED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삭제를 제안했으나 한국을 시작으로 핀란드, 헝가리, 팔레스타인, 오만, 니제르,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스웨덴, 쿠바, 우간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라이베리아 등이 GCED 정의 단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 나라가 <교육 2030 행동계획>의 정의를 언급한 한국의 단축형 수정안을 지지함. 러시아의 우려를 감안하여 as defined를 as referred to로 대체하여 채택.
- **권고안의 목적**에서 3번 단락에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과 지속가능발전을 추가하는 한국 제안 채택.
- **권고안의 제목**에서 한국이 global citizenship을 제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뒤 여러 나라가 수정안을 제시. 이후 쿠웨이트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채택.

2차 회의 주요 내용 (주로 한국측 입장에서)

- 유네스코가 1974년에 제정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 및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시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사무국이 마련한 2차 초안을 검토하는 정부간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 진행(89개 회원국 대표와 약 500명의 옵저버 참석)
- 1차 회의 때 다루지 못한 2차 초안 수정안의 다수 회원국 수정권고가 표시된 자료를 검토하고 11월 유네스코 총회에 회부할 최종 초안을 확정
- 2차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수정 문안이 표시된 영어 및 불어 문서를 1차 회의 때와 동일한 절차로 한 단락씩 검토함. 단,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조항별 개정안을 제출한 국가 간 사전 협의(워킹그룹)를 통해 미리 조율한 문서를 원안과 비교하면서 토의 및 조정함.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동시에 조항에 삽입되는 경우 GCED의 순서가 ESD 앞에 위치하도록 일관성의 필요를 한국 대표부에서 주장하고 이는 이의 없이 관철 됨.
- 1차 회의때 정해진 제목에서 축약된 제목(short title)을 별도로 정한 결과 약간의 논쟁 끝에 의장이 "평화와 인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로 선포함.
- 2차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전문(Preamble)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을 모두 마치고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마무리함.

반영 세계시민성 제목에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 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New title adopted at the first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 Constitution and the Rules of Procedure concerning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covered by the terms of Article IV,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the draft text of the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related preliminary report was sent to UNESCO Member States in September 2022 (CL/4401) for their written comments and observations. On the basis of their comments, a second draft of the text was prepared. The second draft was submitted to the Special Committee meeting of experts designated by Member States, that took place from 30 May to 2 June 2023, as per the circular letter (CL/4417) sent in November 2022 and from 10 to 13 July 2023 as per circular letter (CL/4442) sent in June 2023.↵

↵

THE TEXT IN *ITALICS* CORRESPONDS TO WHAT WAS ADOPTED AT EITHER THE FIRST OR SECOND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

↵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시민성 삽입례

용어정의(definitions)

- (e) “Human rights education” is understood as defined in 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ES/66/137).↵
- ↵
- (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mpowers learners to take informed decisions and responsible actions for environmental integrity, economic viability and a just, societ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while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s defined in the 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
- (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understood as referred to in the 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¹. ↵
- ↵
- (h) “Inclusion” is defined as it appears in the UNESCO Guidelines for Inclusion. ↵
- ↵
- (i) “Transformative education” involves co-created teaching and learning that recognizes and valorises the dignity and diversity of learners in educational settings, eliminates all barriers to their learning and motivates and empowers them to reflect critically, become agents of change and protagonists of their own future, which enables informed decision-making and actions at the individual, community,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ncluding through approaches such a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education, among others, that support the building of peaceful, just, inclusive, equal, equitable, healthy and sustainable societies.↵

운용원칙(guiding principle)

- (g) Ensure that the safety, health and well-being of all learners, teachers and education personnel is protected and promoted;↵
- ↵
- (h) Recognize education and learning as a continuous, lifelong, life-encompassing, holistic, humanistic and transformative process;↵
- (i) Recognize, appreciate and promote awareness among all education policy-makers, education leaders, teachers and education personnel, that all learners without discrimination, actively create and co-create knowledge;↵
- (j) Ensur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belief and religion as well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which includes ensuring the right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n all forms and all media, while prohibiting any advocacy of hatred on any grounds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or violence, as established in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 ↵
- (k) Encourage, empower and support the willingness, and build the capacity, of individuals to engage proactively in solving problems at local, community,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notably through the ethical and responsible use of current and future technologies.↵
- (l) Enable an inter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 in education, underlining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local and the global;↵
- (m) Promote intercultural and intergenerational dialogue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and reinforce effective communication to help develop friendly relations between and among peoples, societies and countries; ↵
- ↵
- (n) Raise awareness of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individuals, communities, societies, countries, natural resources and ecosystems, and cultivate an ethic of global citizenship and shared responsibility for peace, human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all, within planetary boundaries;↵

2023 개정 권고안의 하이라이트

(출처: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you-need-know-about-unescos-1974-recommendation>)

- **평화의 재개념화:**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직접적인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매일 함께 노력하는 긍정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입니다.
-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교육 시스템은 기후로 인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그 여파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약속성과 사회, 천연자원, 생태계의 상호의존성 증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성평등:**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빈곤, 지리적 고립, 조혼과 임신, 성폭력,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상당한 성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네스코 권고안의 대원칙 중 하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모두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2023 개정 권고안의 하이라이트 (계속)

- **세계시민교육**: 국경을 초월한 긴급한 국가적 및 글로벌 이슈로 인해 교육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점점 더 세계의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의 구성 요소인 관용, 존중, 인본주의 정신을 촉진하는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가 새 권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미디어와 정보 문해력**: 정보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및 디지털 기술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보안, 프라이버시 및 윤리적 온라인 상호작용의 주요 원칙에 대한 비판적 사고, 공감 및 이해는 개정 권고안에서 구체적으로 강조됩니다.
- 그 밖에도 **평생교육, 비형식적 교육**에 대한 내용이 주목받는 개정 내용입니다.

2023 개정 교육 권고안에 대한 기대

<출처>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you-need-know-about-unescos-1974-recommendation#:~:text=The%201974%20Recommendation%20is%20the,action%20without%20imposing%20legal%20obligations.>

새로운 권고안은 국가들이 자국의 법,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고 개정하는 데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는 학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로드맵으로 제공하거나,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 또는 직업 훈련 기회를 열어주며, 성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뒷 담화...

- 러시아 대표부의 자충수(?): 회의중 우크라이나 대표의 러시아 침략 규탄과 자국의 피해상황 발언에 대해 폐회 선언 직후 러시아 대표가 발언 신청을 하여 이를 반박하고 더불어 대표부 비자 발급을 제한한 프랑스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으나 부의장인 캐나다 대표에 의해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천명함.
- ‘Working group’의 외교력
- 한, 중, 일 미묘한 신경전?
- 유럽, 중동지역 등 문화차이의 절충
- 대한민국의 위상 (featuring “파리대첩”)
- 앞으로 할 일들

